

2006 대기환경관리 정책 추진방향



안 연 순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 02-2110-6781 avs117@me.go.kr

<필자약력>

-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 시설기술국 근무
- 화학물질과장, 환경평가과장, 환경기술과장, 대통령비서실 환경행정관
- 해외훈련 : 미국 오레곤 주립대 환경공학 석사(97~99)
- 현재 : 환경부 대기정책과장(2005.8~)

.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90년대까지의 대기보전정책 성과

인체건강차원에서 중요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도입('95)하는 등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였으며, 90년에는 환경보전법이 대기·수질 등 매체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분별화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상시측정, 사업장관리, 연료규제, 자동차오염관리 등 대기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울산·온산 등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왔으며, 고체연료사용

규제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규제수단을 강화하였다.

2. 2000년 이후의 대기보전정책 성과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였고, 도로이동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저공해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새집증후군등 신규환경수요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3. 현재의 좌표 진단

저황유 및 청정연료 보급 확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각종 오염저감정책에 힘입어 1차 대기오염물질인 SO₂와 CO의 오염도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가 급증하는 등 오염원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저감에는 한계를 보여 NO_x 및 미세먼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양만권과 울산·온산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은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등에 의한 오존오염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04년 오존 환경기준 초과횟수 : 광양만권 158회, 울산 73회)

. '06년 대기환경관리 정책

1. 미래지향적 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 가. 수도권 및 지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

수도권지역에 3개 시·도별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공해 방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5대 광역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하여 수도권 수준으로 대기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기개선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 대기환경기준 선진화 및 에너지 보급·이용의 친환경성 강화

교통세 및 에너지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연료사용에 따른 사회적비용에 비례한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차기 자동차연료를 미국·유럽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는 초저황경유 보급이 의무화되었으며,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 공개제를 통하여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조사하고 환경품질 등급을 산정·평가할 계획이다.

2. 이동오염원 관리대상 확대 및 선진화

가. 부산 등 5대광역시 자동차오염 저감대책 실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차 보급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하여 올해 413대를 시범 보급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사업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검사 시행 지역을 기존 부산·대구에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조례제정·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 천연가스자동차 1만대 보급 및 수출 지원
천연가스버스를 1만대 이상 보급하여 시내버스 대비 보급률을 35%수준으로 확대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남아 국가에 천

연가스차 충전소 및 관련부품 지원, Road Show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CNG(압축천연가스)차량 외에 LNG(액화천연가스)차량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고, 시범운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체계의 선진화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 및 부품결합 현황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결함확인검사 예비검사 대상차종을 작년 20개에서 올해는 25개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부터 폐차까지 차량결합 및 정비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배출가스 종합관리전산시스템 운영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무부하검사로 시행되는 5.5톤 이상의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부하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라. 환경친화적 교통관리체계 구축 추진

환경지역 지정, 교통혼잡세 부과 및 대중교통 기반확충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수도권 등 교통오염 우심지역에 적합한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자전거 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의 자전거이용 및 관련제도를 조사하여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3. 과학적·예방적 대기환경관리 강화

가. 사업장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NOx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 조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철강, 발전, 정유 및 석유화학, 시멘트, 소각업종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원화된 기본/초과부과금체계를 총량중심체제로 통합하고 굴뚝 TMS 부

착대상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설치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나. 광양만권 등 산단주변 대기개선 추진

'05년에 광양만권 오염물질을 향후 5년간 13% 삭감하는 「5-13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는 울산·온산 산업단지내 대기 1~3종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향후 5년간 15% 줄이며 대산석유화학단지내 1~3종 사업장과 인근지역 화력발전소와 대기오염물질 삭감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광양만권역, 울산 지역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의 배출원별 체계적 관리

HAPs 배출량저감을 위한 주요배출원 시설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장에 제공하고 산업분야의 HAPs 배출 고정오염원에 대한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HAPs 배출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라. 친환경 도로 보급 등 VOCs 근원적 저감

'05년 7월 환경친화형 도로 보급 및 사용의무화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하여 년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07년부터 강화되는 차기 기준준수를 위한 도로제조업체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 주유기에 대한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지역 주변 주유소의 VOCs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새집증후군, 소음, 악취 등 신규 수요 적극 대처

가. 보육시설, 지하철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1천 제곱미터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로 한정되

어 있는 관리 대상에 민영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대상시설 적용기준도 강화하며 PC방과 같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자발적 협약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등 특수실내환경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 라인을 마련 할 예정이며, TMS 시범설치를 통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건축자재, 생활용품과 같은 오염원에 사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미규제 소음발생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같이 도로소음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소음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소음지도도를 작성하여 발생원인별 소음피해 노출인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다. 악취저감을 통한 감각생활 공해 개선

중장기 국가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지역별 악취특성을 고려한 악취관리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인천 서구, 부산 사하 등 악취민원 다발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유도하고 악취물질의 주거지역 이동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요구조건에 적절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하여 악취저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5.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문제 대응대책 추진.

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

TMS를 이용하여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산업·환경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

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홍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대국민 및 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온실가스 관리·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대책 강화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업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고, '07년에 실시하는 수도권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하여 50MW 발전사업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및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확대 추진하여 환

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관리대책 추진
황사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 내 황사관측망을 현재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백령도 대기종합분석센터 설립을 통하여 황사 및 유해대기오염물질과 같은 장거리이동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사업(EANET) 정부간 회의에도 적극 참가하여 동북아 대기분야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환경 네트워크 안내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을 수요·공급업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산업부산물을 손쉽게 거래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각종 환경경영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http://env.korcham.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이트는 산업부산물 배출업체 또는 수요업체 쌍방이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의 배출과 수요정보를 입력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거래상대를 찾을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처리·재생업체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산업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정보를 통해서 환경친화경영, 국제환경동향, 국내환경정책, 지역환경개선, 환경일반 등 각 부문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한 각종 환경관련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사이트명	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
도메인명	http://env.korcham.net
주요정보	산업부산물교환정보, 처리/재활용처리업체 리스트, 환경경영정보, 기업환경건의센터, 주간 '대한상의 산업환경 다이제스트'
주요특징	등록비·연회비·거래수수료가 전혀 없는 무료정보사이트

※ 동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상의 산업환경팀(TEL. 02-6050-3454, FAX. 02-6050-3700, E-mail: green@korcham.net, 담당자: 조윤택)으로 연락하여 시스템 안내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